



2024년 제32호(통권 제82호) 2024.12.24.(화)

│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 **발행인** 김성진 │ 편집위원장 정재진 │ 편집위원 강은하 김도훈 김타균 양은순 유현희 최석환 한연주

[SRI 시민패널조사]

수원시 워킹맘, 워킹대디의 양육환경

박민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정재진 연구기획실장 farnia@suwon.re.kr

김재이 위촉연구원

요약

▮ 워킹맘과 워킹대디. 저출생 해소 정책에 대한 선호도 차이 존재

- 워킹맘. 워킹대디가 인식하는 저출생 문제의 주원인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 일을 지속할 수 없다는 불안. 주택 마련 비용에 대한 불안으로 나타남
- 저출생 해소를 위해 워킹맘은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워킹대디는 출생 및 양육 현금 지원 확대 필요하다고 인식

▮ 육아친화적인 도시를 위한 양육 관련 인프라 수요 높음

- 수원시 워킹맘. 워킹대디 10명 중 5-6명은 수원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어하며. 워킹맘은 자녀 교육 여건이 좋아서. 워킹대디는 위치와 교통이 좋아서가 주 이유
- 수원시 워킹맘. 워킹대디는 육이천화적인 도시를 위한 필요 정책으로 양육 관련 인프라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24시간 영유아 긴급 보육 등)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한 '탈가족화'를 여전히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남

시사점

▮ 일·가정 양립 균형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는 워킹맘, 워킹대디를 위해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하고 가족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 확대 필요

- 워킹맘은 근무환경 유연화에 대한 수요 높음. 따라서 워킹맘이 가정과 직장에서 효율적 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자유로운 연차/반차 사용, 재택 근무 등) 필요
- 양육스트레스 줄이고 일·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가족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 확대
- 수원시 워킹맘, 워킹대디의 양육 관련 인프라 강화 필요성에 따라 24시간 어린이집. 야간 연장 어린이집과 같은 틈새돌봄 지원 확대 필요



1

일·가정 양립 균형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는 워킹맘, 워킹대디

□ 아침에는 회사, 퇴근 후 육아로 출근하는 워킹맘, 워킹대디의 현실

- O 아침에는 회사로, 퇴근 후에는 육아로 출근하는 워킹맘, 워킹대디는 일·가정 양립의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19년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조사에 따르면, 일하는 부모 4명 중 1명은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 차별을 받은 적 있으며, 중요한 업무에서 밀려나는 등 회사 내에서 어려움을 겪음
 - 미국에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워킹맘(53%)과 워킹대디(51%)의 비율은 유사하며, 일하는 부모가 되면 좋은 부모가 되기 어려워진다고 응답함. 특히, 워킹맘은 워킹대디보다 직장이나 경력에서 발전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응답
 - 워킹맘은 일과 육아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근무 시간을 줄여야 했거나(54%) 직장에서 100%를 쏟을 수 없다고 느꼈다 (51%)고 응답함. 또한 워킹맘의 23%와 워킹대디의 15%는 일과 육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승진을 포기한 적이 있다고 응답함
 - 일하는 부모의 약 4분의 1(23%)은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업무에 전념하지 않는 것처럼 대우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17%는 중요한 업무에서 밀려났다고 응답. 또한 16%는 이러한 이유로 승진을 포기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승진을 포기한 경험은 워킹맘이 워킹대디보다 높게 나타남



출처: Daisy Dowling(2019)

○ 워킹맘 가정은 비워킹맘 가정보다 '돌봄공백' 더 힘들어함

-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부모로서 겪는 가정의 어려움으로 워킹맘 가정은 신체적 어려움(피로감/수면 부족 등)을 꼽았으며, 워킹맘 가정이 비워킹맘 가정보다 어려운 것은 '돌봄공백'으로 나타남

<부모로서 겪는 가정의 어려움>

(단위: %)

구분	돌봄공백으로 인한 어려움	신체적 어려움	정신적 어려움	재정적 어려움	직업적 어려움	관계적 어려움	공간적, 환경적 어려움
워킹맘 가정	53.1	64.0	53.1	48.4	52.6	30.5	38.9
비워킹맘 가정	30.1	62.0	55.7	53.6	57.8	23.2	36.1

주: 서울 거주 만 0-9세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20-64세 기혼자 대상, 대체로 어렵다, 매우 어렵다라고 응답한 비율의 합

- O 서울 맞벌이 가정의 23.6%는 우울, 20.8%는 불면증 경험함
 -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부모의 경제수준이 낮거나, 자녀의 연령이 어리고, 여가활동을 하지 않고, 돌봄 분담 만족도가 낮을수록 양육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 유병률이 높게 나타남
 - -서울 맞벌이 가정의 우울 경험률은 23.6%, 불안 15.8%, 불면증 20.8%, 자살생각 8.6%로 나타남

<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

(단위: %)

구분	우울	불안	불면증	자살생각
부모 모두 경제활동	23.6	15.8	20.8	8.6
아빠만 경제활동	23.7	16.0	17.9	10.7

주: 서울 거주 만 0-9세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20-64세 기혼자 대상

□ 정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3대 대책(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발표

○ 정부,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일 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개 핵심 분야 지원 집중



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2024),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 저출생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인 '양육', 수원시는 과연 워킹맘, 워킹대디가 양육하기 좋은 도시일까? 워킹맘, 워킹대디는 저출생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를 파악
 - SRI 시민패널을 활용하여 수원시 워킹맘, 워킹대디의 특성과 저출생 인식, 수원시 양육환경에 대해 설문 분석 실시

2 수원시 워킹맘, 워킹대디¹)의 양육환경 조사결과

■ 2-1 수원시 워킹맘. 워킹대디의 저출생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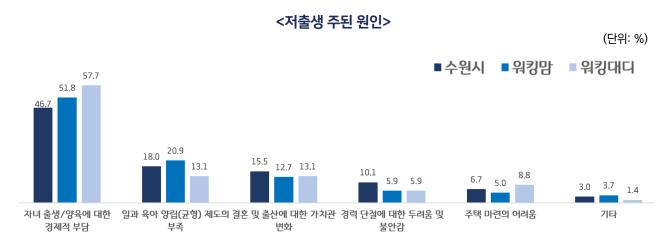
□ 수원시 워킹맘, 워킹대디의 93-96%는 한국사회에서 저출생 문제 심각하다고 인식

○ 수원시민의 85.9%가 한국사회에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수원시 워킹맘, 워킹대디는 수원시 전체 평균보다 높은 93-96%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저출생 주요 원인은 자녀 출생/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

- 수원시민을 비롯해 워킹맘, 워킹대디 모두 저출생의 주된 원인으로 자녀 출생/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1순위로 꼽음
- 저출생 주요 원인에 대해 워킹맘은 일과 육아 양립(균형)제도의 부족, 워킹대디는 주택 마련의 어려움을 꼽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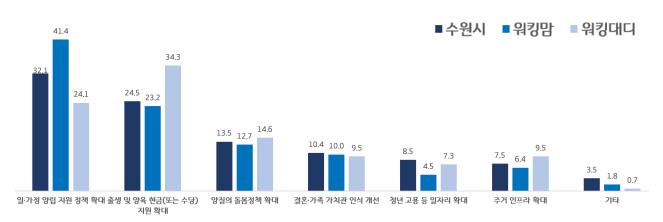


¹⁾ 본 보고서에서 워킹맘, 워킹대디는 맞벌이 가구이면서 자녀가 있는 여성 또는 남성으로 정의

O 저출생 해소를 위해 워킹맘은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워킹대디는 출생 및 양육 현금 지원 확대 필요하다고 인식

- 저출생 해소를 위해 수원시민은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육아휴직 제도 확대 등)이 필요 (32.1%)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출생 및 양육 현금 지원 확대(24.5%), 양질의 돌봄정책 확대(13.5%) 순
- 저출생 해소를 위해 워킹맘은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이 확대(41.4%)', 워킹대디는 '출생 및 양육 현금 지원 확대 (34.3%)'가 필요하다고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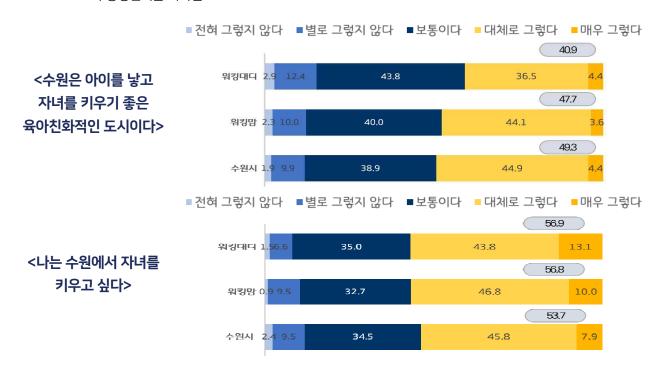
<저출생 해소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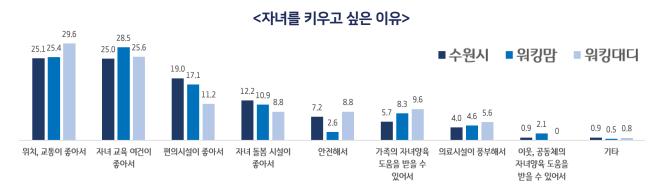
■ 2-2 수원시 워킹맘, 워킹대디의 양육환경

□ 수원시 워킹맘, 워킹대디 10명 중 5-6명은 수원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어해

- 워킹맘. 워킹대디는 수원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수원은 아이를 낳고 자녀를 키우기 좋은 육아친환적인 도시'라는 질문에 수원시민의 49.3%가 긍정인식을 보였으며, 워킹맘의 47.7%, 워킹대디의 40.9%가 긍정인식을 나타냄
 - '나는 수원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다'는 질문에 수원시민의 53.7%가 긍정인식을 보였으며, 워킹맘의 56.8%, 워킹대디의 56.9%가 긍정인식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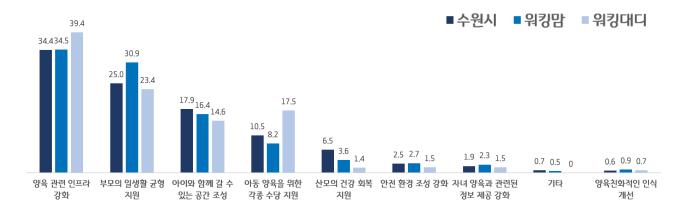
- □ 워킹대디는 위치, 교통이 좋아서(직장, 양육시설 접근성), 워킹맘은 자녀 교육 여건이 좋아서(학교, 학군, 학원 등) 수원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어해
- 워킹맘은 자녀 교육 여건이 좋아서 수원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워킹대디는 위치, 교통이 좋아서 수원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워킹대디는 워킹맘에 비해 수원이 안전해서, 가족의 자녀양육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의료시설이 풍부해서 수원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워킹맘은 워킹대디에 비해 편의시설이 좋아서, 자녀돌봄 시설이 좋아서, 이웃, 공동체의 자녀양육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수원시가 육아친화적인도시가 되기 위해서 양육 관련 인프라 강화정책 필요

- 워킹맘, 워킹대디 모두 양육 관련 인프라 강화(국공립어린이집 확대, 24시간 영유아 긴급 보육 등)가 가장 필요 하다고 응답
 - 워킹맘은 부모의 일생활 균형지원(30.9%), 워킹대디는 아동 양육을 위한 각종 수당 지원(17.5%)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육아친화적인 도시를 위해 필요한 정책>



3 시사점

□ 수원시 워킹맘, 워킹대디를 위해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하고 가족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 확대

- 수원시 워킹맘. 워킹대디 경제-일자리-주거 불안이 저출생 문제의 원인이라 지목
 - 수원시 워킹맘, 워킹대디 한국사회에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은 자녀 출생/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이며, 워킹맘은 일과 육아 양립(균형)제도의 부족, 워킹대디는 주택 마련의 어려움을 꼽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즉, 워킹맘, 워킹대디는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 일을 지속할 수 없다는 불안, 주택 마련 비용에 대한 불안을 주요 원인으로 꼽음
- 수원시 워킹마, 워킹대디 돌봄의 공공성 강화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인식하나 돌봄의 재가족회를 고려한 근무환경 조성 필요
 - 과거에는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탈가족화'를 지향했으나 최근에는 '돌봄의 재가족화'가 중요해짐. 따라서 지자체는 양육 지원 방식(현금, 서비스, 시간) 중에 시민들이 무엇을 더 필요로 하는지 진단하고 정책을 설계하는 중임
 - 수원시 워킹맘, 워킹대디는 육이천화적인 도시를 위한 필요 정책으로 양육 관련 인프라 강화(국공립어린이집 확대, 24시간 영유아 긴급 보육 등)를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한 '탈가족화'를 여전히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워킹맘 3명 중 1명은 육아친화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 부모의 일생활 균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즉, 근무환경 유연화에 대한 워킹맘의 높은 수요를 확인할 수 있음
 - -수원시 워킹맘, 워킹대디 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 확대될 수 있도록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필요 ※ 경기도 소속 공무원 대상 「4·6·1 육아응원근무제*」시행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
- 양육 스트레스 줄이고 일·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가족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 확대
 - 일·가정 양립에서 오는 역할갈등 및 스트레스 등은 부정적 아동발달, 가족 간 불화, 개인적 차원을 넘어 기업 측면에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음. 따라서 워킹맘, 워킹대디의 스트레스 관리, 역량강화, 가족문제 예방 등을 위한 가족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 확대 필요
 - 수원시 워킹맘, 워킹대디의 가족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원 기관과 기업과의 연계 및 프로그램 참여 시 근로 시간 인정 제도 등 필요

✔ SRI 시민패널조사 개요(2024년 2/4분기)

- 조사목적 : 시정현안에 대한 적시성 있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 구축, 시민들의 시정현안 인식과 변화 파악
- 조사대상: 수원시정연구원 패널 2.811명(유효표본 1.386명)
- 조사방법 : 온라인조사
- 조사시기 : 2024.5.20.-2024.5.28.(9일간)
- 조사내용 : 수원시민의 저출생 인식과 수원시 양육환경, 수원시 정책인식 및 기대효능감

▮ 참고문헌

Daisy Dowling, 2019, A Working Parent's Survival Guide(https://hbr.org/2019/07/a-working-parents-survival-guide)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8, 2018 한국의 워킹맘 보고서

김성아김정아, 2023, 서울시 양육자의 정신건강·양육 스트레스 실태 분석과 지원방향,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2024, 서울 워킹맘·워킹대디의 현주소(서울인포그래픽 제351호)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2024,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3개 핵심 총력지원 + 사회인식 변화 노력 강화

